

2023. 5. 30.(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30일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식물원 식물연구과

서울식물원장	김 대 성	2104-9710
식물연구과장	이 완 희	2104-9750
담 당 자	박 혜 민	2104-9756
홍보담당	허 준	2104-9783
관련 누리집	<a href="https://botanicpark.seoul.go.kr">https://botanicpark.seoul.go.kr</a>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 서울식물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1종 300여개체 전시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1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개최
- 식물의 서식지 등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주제정원 내 300여개체 전시원 조성
- 식물정보를 담은 큐알(QR) 안내판 설치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 제공
- 시, 앞으로도 다양한 멸종위기종 보존·증식을 위해 노력할 것

- 도심 한복판 서울식물원에서 보기 힘든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한눈에 관찰해보자!
- 서울식물원은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 점차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식물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리고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원’을 조성하고 오는 5월 30일에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시는 서울식물원 재배온실에서 증식·보존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식물 11종, 300여개체를 주제정원 ‘숲정원’에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정되며, 이번에 전시된 식물은 멸종위기 II급 식물로 나도승마, 단양쑥부쟁이, 대청부채, 백부자, 분홍장구채, 산분꽃나무, 섬시호, 큰바늘꽃, 독미나리, 매화마름, 삼백초로 총 11종으로 약 300여개체이다.
- 이 중, 독미나리, 매화마름, 삼백초는 계곡부 주변, 습지, 연못 등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수경에 식재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식물들도 서식지 조건에 따라 식재되어 있다.
- 주제정원 숲정원은 한반도의 자생종과 특산식물로 한국의 전통 숲을 재현한 공간으로, 멸종위기종 외에 다양한 자생식물을 만나 볼 수 있다.



- 멸종위기 야생식물과 더불어 서울식물원에서는 총 4,466종의 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식물정보를 담은 큐알(QR) 안내판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한다.
- 안내판 내 큐알(QR)코드는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식물정보(식물원보유종)’으로 연동되며, 멸종위기종 뿐만 아니라 매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식물원의 식물들이 개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botanicpark.seoul.go.kr/front/plants/plantsIntro.do>)

□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은 “서울식물원은 멸종위기 식물의 증식 및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멸종위기종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붙임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원』 조성 이미지 1부. 끝.

#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원』 조성 이미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원 조성 전경

##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원 Endangered Species Garden

이곳은 서울식물원에서 증식·보호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1종(나도송마, 단양쑥부쟁이, 대청부채, 독미나리, 매화마름, 백부자, 분홍장구채, 산분꽃나무, 삼백초, 섬시호, 큰바늘꽃)을 감상할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환경부가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I급 ↔ II급 ↔ 관찰종 순으로 지정 및 해제되며, 22년 12월 개정되어 현재 지정된 야생생물은 총 92종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5년마다 개정되며,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받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시원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생물들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라며, 서울식물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및 보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